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유 진 형
편집인 : 박 상 호

2. 성시장학재단 설립에 대하여
3. 십자가 평화대행진을 마치고
7. '갈릴리 예수'를 닮은 교회
9. 성공하기 위한 인생의 6가지 덕목

나 침 반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5년 4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77호

독서의 계절, 영적 성숙을 꿈꾼다.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가운데 특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바퀴요, 다른 하나는 책이다. 사람들은 바퀴를 이용해서 공간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책을 통해서는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사람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에 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성장과정을 보면 대개 책과의 만남이 있었다.

독서는 사람을 바꾼다

책을 읽는다고 모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대한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이다. 에디슨은 1847년 2월 11일,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석 달 만에 에디슨은 문제아, 열등생으로 찍혀 학교에서 쫓겨났다.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아들이지만 어머니는 '이 아이는 열등아가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르치겠다'고 결심한다. 에디슨은 19세가 되어도 문장을 능숙하게 만들지 못해 편지 한 장을 쓰는데도 쩔쩔 매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참을성 있게 아들에게 배우는 즐거움, 독서하는 기쁨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독서의 습관이 훗날 그에게 헤아릴 수 없이 큰 도움을 주고, 그의 학문연구의 바탕이 되었다. 훗날 발명왕이 된 에디슨은 자신의 성공은 오로지 어머니의 덕분이라고 감사해 하였다.

삶을 위해 독서하라

오늘과 같은 정보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많은 독서를 해야 한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더 필요하다. 독서에 대한 태도나 기술이 뒤떨어져 있으면 일생을 두고 큰 시간의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더 시간낭비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책에 써 있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시행착오를 많이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서능력은 인간의 종합능력이다. 기억력, 이해력, 추리력, 상상력 등의 기본적 능력과 보고 듣고 읽고 쓰는 등의 실제적 능력이 서로 종합되어 더욱 더 효과를 내어가는 종합적 능력이다.

영적 지도자들의 공통점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공통점이 있다. 요셉도, 다니엘도, 모세도 평생 학습자로 산 것이다. 학습에 길이 있다. 많은 학습의 경우 독서를 통해 그 깊이가 더해간다. 그러므로 책 속에 길이 있다. 책 중의 책인 성경 속에 길이 있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습공동체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학습공동체였다. 성령이 충만하던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다(행2:42).

21세기는 지식혁명의 시대다.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평생 독서자가 되어야 한다. 엘빈 토플러는 "21세기 문맹자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독서하고 교정하고, 재학습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독서하고, 재활용하라. 독서를 통해 잘 준비된 사람이 되라. 조급함과 게으름을 경계하자. 영적 실력, 인격적 실력, 하나님을 위해 지적 실력을 쌓도록 하자. 이 독서의 계절, 봄에 말이다.

[글/편집부]



이달의 말씀

잠언 3장3~4절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 **십자가평화대행진과 부활절연합예배의 감사**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은혜 속에 진행되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됨에서 나온다. 요즘 더욱 연합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는데 이 힘을 모아 이 땅이 복음의 도시가 되길

· **학교에 대한 비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차세대를 책임질 믿음의 청소년들을 양육할 학교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

· **독도와 고구려 역사문제**
주변강대국속에 독도문제와 고구려문제로 인한 일본과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 주여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춘천의 캠페이지 메세**
이를 통한 도시의 발전이 한층 탄력을 얻게 되어 깨끗하고 밝은 거룩한 도시, 찬양과 웃음과 비전을 주는 믿음의 도시가 되게 하소서

· **춘천의 세계레저종합유치를 위해**
춘천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고 시민들의 생활과 삶이 윤택해지는 기회가 되길. 주여 시장님을 축복하여 주소서

"손잡고 함께 가는
여러분의 Y신협이 되겠습니다"

- 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2억입니다.
- 적금 신용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담보 1억, 신용 5천만원이며, 교회일반회계 입출금 거래시 평잔의 2배 범위내 무보증 무담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최고 2천만원입니다.
- 교회담보 대출의 최저금리는 5.9%입니다.
- 대출기간은 기본 3년에 필요한 경우 5%이상 원금상환시 계속연장이 가능합니다.
- 서류가 간단하며, 교회 앞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신용정보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 성도님들의 대출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 교회명의 송금수수료 면제 또는 기본수수료 5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1980년 8월 18일 설립
현재 자산 370억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
본 소 : 033)255-1007 (CBS춘천방송국 1층)
강남지소 : 033)261-1002 (퇴계 현진에버빌 2차 옆)

특 집

성시장학재단 설립에 대하여

'새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자'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차장 정재호 목사

차세대 성시지도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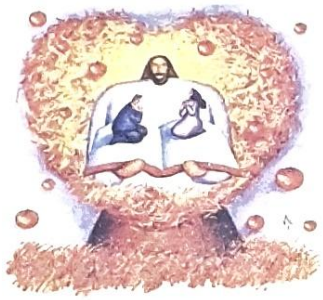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은 한국 최초로 일어난 성시화운동입니다. 성시화운동이 시작된 이래 춘천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성시화된 춘천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속한 모든 교회와 지역사회에 과연 춘천성시화운동이 1972년 시작된 이래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성시화운동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운동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나라 확장운동이라는 점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어느덧 30여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세대가 지난 것입니다. 초창기 하나님께서 춘천성시화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민족의 역사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민족과 백성위에 복음과 성령으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었습니다. 성시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염원하며 무릎 꿇고 쓰러졌던 수많은 종들의 기도와 눈물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민족의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고, 춘천성시화운동은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현금 한국교회는 새로운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다는 염려와 한탄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믿음의 종들이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타종교와 인본주의 사조와 사상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춘천과 한반도에 성시화운동의 불길이 타오르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새시대의 도전과 과제를 믿음으로 헤쳐 나갈 위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신앙전수의 필요성

현재 성시화운동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차세대 성시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하나님나라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은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임을 져야 할 죄인들이며, 세상에 교회가 서야할 자리를 내어주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거룩한 사역에 실패하고 오히려 세상에 지배당하는 치욕적인 역사가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가나안땅을 믿음으로 정복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을 이겨내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생활을 통해 연단을 받아야만 했던 고난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정복한 땅을 한세대 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세상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를 그들의 후손에게 준비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영적지도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련시켜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본 것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중에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을 내게로 모이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씀을 들려주리니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고노라(신4:9~10)



기독교적 지성의 빈곤과 영성의 혼란

한국교회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는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종교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어 교회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리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카톨릭과 불교도 힘께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들 종교는 여전히 증가하고 늘어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된 큰 이유를 두 가지로 곱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성의 빈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성이란 기독교적인 지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고하는 생각하는 힘을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70, 80년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서도 한국사회와 민족을 이끌어갈 정신적, 사회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성의 혼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이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삶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기도하셨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최근 들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지 않는 이기적인 교회, 세속적 성공을 신앙의 성공이라고 부추기는 값싼 영성의 추구, 지나치게 치우친 감정적 주관주의, 은사주의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냉철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시화운동의 과제

성시화운동은 한국교회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시화운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시화운동의 미래도 그리 밝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위기에 처하여 움츠려드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신앙이요,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키는 생명력 있는 신앙입니다. 성시화운동은 새로운 시대가 교회에 도전하는 과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때까지 기독교 선교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기독교선교운동을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성시화운동 그 자체에 끊임없는 원동력을 불어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대안을 모색하고 성시화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시장학재단설립을 제안한다.

현시점에서 성시화를 위한 차세대 지도자 양성(이하,성시연구원)을 위한 성시장학재단의 설립은 매우 절실히 요구되는 일입니다. 성시화운동이 심기일전하여 한국교회를 섬김으로써 민족복음화를 이루고 지역사회에 대한 영혼구원과 복지적 책임을 다하며, 나아가 세계선교에 쓰임 받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차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시화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며 한국교회를 섬기고 민족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비전! 이제 이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춘천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성시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성시화를 위한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모으고 지속적인 투자와 과감한 지원을 뒷받침한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설립취지

- 성시장학재단은 춘천지역의 성시화와 한국교회의 부흥, 세계선교의 비전을 기진인재들을 발굴, 육성해야 합니다
- 성시장학재단은 성시화를 위한 차세대 지도자(성시연구원)들을 양성하되, 각 영역에서 발굴 양성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신학,목회,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 등)
- 성시장학재단은 성시연구원들이 교회와 신학, 각 전문영역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구기반과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굴하시고 준비시켜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면 분명 예수님은 자기세대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자하는 마음도 자신이 뿌린 씨앗을 자기 눈으로 꼭 봐야만 한다는 집착도 없으셨습니다. 부활의 비천한 이부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갈릴리 땅을 누리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스승인 자기를 배반하고 옛생활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모이게 하신 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해버리셨습니다. 무명의 이부 12명! 그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해 내신 다음세대를 위한 대안이셨습니다. 교회가 다음세대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가오는 새시대를 향한 성시화운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준비하는 일. 성시화의 차세대 지도자를 기르는 일, 다음세대를 위한 믿음의 군대들을 일으키는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성시화의 봄바람 열정에 사로잡힌 사랑하는 춘천의 모든 교회와 동역자들은 이 일을 위해 모여야 합니다.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기도를 모으고 물질을 모아야만 합니다. 다가오는 시대를 바라보며, 차세대 하나님나라의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다음세대를 위해 교회가 예수님처럼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상호 조영춘 최영조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김춘배 김규현 김수영 이희영 김미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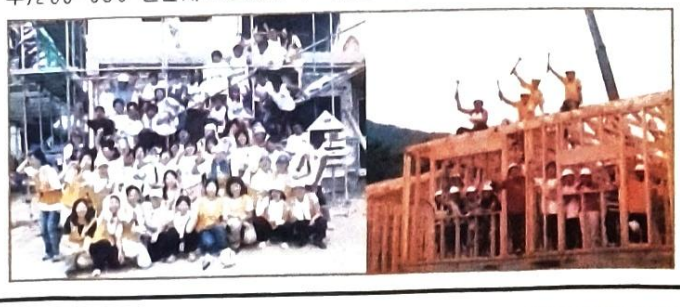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비타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집을 주세요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2005년 사랑의 집짓기에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되어 '사랑나눔운동'에 동참합시다. 매월 1구좌 2,000원 이상씩 후원하시면 집이 없는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갖게 되고 가정복원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비타트 춘천지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254-0009

십자가 평화대행진을 마치고

준비위원장 한 균 목사 (평화감리교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짊어지고 걸었던 십자가! 그 고난을 좀 더 깊이 느껴보란 듯 봄을 시샘하는 날카로운 추위가 세찬 바람과 함께 옷 속까지 뚫고 들어왔다. 주최 측의 염려는 여기저기 사방에서 모여들었던 춘천의 성도들을 보면서 안심으로 바뀌었다. 노쇠한 합미니 할아버지 성도들로부터 걷는 것이 차마 애처로워 보이는 유치원 아기들까지 모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자 십자가 행진에 동참하였다. 그들의 얼굴에 춘천에 희망이 들어 있었다. 춘천이 새롭게 깨어나고 있는 느낌이었다. 우리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행진 대열은 우리 춘천과 민족의 끝없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실 이번 십자가 대행진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감지되었다. 불과 두 주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을 두고 갑자기 조직된 준비위원회였지만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모인 춘천의 목회자와 장로들의 얼굴에는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애초에 잡았던 조그마한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이번에는 뭔가 큰일을 이루자는 각오로 틀을 새롭게 짜게 되었다. 좁은 예배당 장소를 삼천동 수변공원의 넓은 잔디광장으로 바꾸고, 몇 백 명 목표를 수정하여 아예 1만 명을 목표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초라한 패잔병들의 행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거대한 승리의 행진을 위한 가등을 시작하였다. 몇 번의 준비모임 중에 드려진 기도는 춘천성시화를 향하여 재도전하는 열기로 뜨겁게 달구어 올랐다. 주님께서 이 도시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염려가 감사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 갔다.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행진이 예감됨을 서로가 느끼고 있는 듯 모인 이들의 얼굴에 각오가 서려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번 행진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었다.

십자가 대행진을 하루 앞둔 3월 11일 금요일, 그간의 포근한 봄 날씨를 앗아가 버리는 듯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일기예보는 비 온 후 기온이 급강하 하여 추위가 닥칠 거라며 한파 주의보를 내렸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행진을 위하여 하루도 우리를 방심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종일 지루하게 내리는 빗줄기 속에 긴간이 들려오는 듯 하였다. 금요일 밤이 되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금요일처럼 정기 심야기도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번 기도회는 전과는 달리 내내 십자가 대행진을 주제로 기도를 드렸다.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다. 몸은 무척 피곤했는데도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 그래도 내일을 생각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는데 얼마를 지났을까? 문득 눈을 떠보니 새벽 5시였다. 심야기도회를 마친 후라 새벽기도회가 없는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생각에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얼마 시간이 흐르자 불안한 마음을 제어하는 평안이 찾아오며 다시 잠이 들었다.

드디어 3월 12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보니 빗줄기가 지나간 후 햇살이 반짝 얼굴을 드러내고 새 아침을 열고 있었다. 감사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 날씨는 지난 며칠 등안의 포근함과는 대조적으로 쌀쌀한 기운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게다가 간간이 바람이 몰아치면서 날카로운 추위가 두꺼운 옷까지도 뚫고 살 속을 파고들어 괴롭게 하였다. 다시 염려가 일어났다. 이 추위를 이기고 모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집회 시간인 2시가 가까워지는데도 사람들의 발걸음은 드믈게만 느껴졌다.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다. 눈은 자꾸 공지천 건너 시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2시가 다 되면서 행사장을 향한 버스와 차량, 그리고 사람들의 행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춘천집회는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엄습한 추위를 이기고 시작되었다. 수변공원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안에도 간간히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며 우리를 힘들게 하였다. 마치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느껴보라는 듯이 두터운 외투까지 뚫고 들어오는 매서운 바람이 느껴졌다. 그래도 진지한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은 마냥 푸근하기만 하였다.

집회를 마친 후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행진이 시작되었다. 5개부대로 조직된 행진 대열은 선두가 행사장을 떠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도 후진은 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 정말 길고 긴 성도들의 대행진이었다! 그 자체만 바라봐도 가슴이 뿌듯하였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어깨에 지고 가는 십자가에 이 도시와 이 민족을 향한 사명이 느껴지는 듯 하였다. 5개부대로 이어진 대행진은 춘천 중앙로를 내내 이어주는 듯 길고 긴 행렬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누가 훼방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누가 그 복을 막겠는가! 이번 춘천 십자가 대행진은 교파와 교회의 벽을 넘어 일치된 힘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그 속에 춘천 성시화와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세계 선교의 꿈과 희망과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춘천CCC사역을 마무리하며

정경호목사(전 춘천CCC대표)

지난 2월말 성경통독순장수련회를 마지막으로 6년간의 춘천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99년 5월, 춘천에 부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대학생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동역했던 사랑하는 간사님들, 나사렛형제들, 고마움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순장들, 이린이집 선생님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또한 춘천지역교계의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강원대, 한림대, 교육대, 성심대에서 복음을 전하며 순모임하던 순간들이 너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춘천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막연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춘천의 거리, 골목, 구석구석까지 지도를 그릴 만큼 익숙하고 친근하게 되었습니다. 정든 제자들을 뒤로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춘천의 모든 사역을 후임자에게 위임하고 지금은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들봐야할 제자들도 있고, 할 일도 있고 그리운 사람들이 춘천 땅에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또한 "그 말씀이 제자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을" 믿고 맡기고 떠났던 장면이 연상됩니다.

춘천사역을 결산하면서 부족하지만 그 열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CCC사역의 원 주소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여 총성스런 순원을 만들고 재생산하는 순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 매년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회관 사랑방에서 경건훈련과 학업을 하면서 미래의 지도자로 양육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일본과 중국에 단기선교를 통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꿈을 키우며 단기선교사로 복음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국최초로 춘천CCC가 유일하게 어린이집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설립하여 5년 동안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어린이 마음마다 하나님사랑을 가득 심는 소중한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에 열정이 있고 찬양에 달란트가 있는 순라이프음악선교단의 헌신으로 중부전선군선교사역을 통해 많은 군인들을 위문하고 복음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시화의 본고장 춘천에서 매년 수백 명의 대학생들을 각 교회에 파송하여 춘천성시화도시전도를 통해 춘천시민의 가슴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에는 강원도 전역을 순례하며 광야훈련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춘천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살아있는 성시화의 도시가 되길 춘천을 떠나서도 잊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2005 춘천 2기
독수리 예수제자 훈련학교
Business Eagle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일정 / 2005년 5월 6일(금) ~ 10월 7일(금)
시간 / 매주 목, 금 저녁 7시~11시
장소 / 춘천성결교회 (중앙병원 옆)
대상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기 원하는 직장인, 주부
인원 / 30명
마감 / 2005년 4월 8일(금)
문의 /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 252-1128
http://cafe.daum.net/CCBEDTS
에서 원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Chuncheon 예수전도단 Youth With A Mission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
영어회화 기적이 일어난다! / 단 한 달 만에 입이 열린다! / 실전적 파라 하기만 하면 된다!
1. 개 강 일 : 5월 2일(월) 오후 7시(시간엄수)
2. 기 간 : 5월 2일(월)~27일(금) (매주 월,화 목,금 오후7시~10시까지)
1일 3시간씩 1개월(16일간 총48시간) 학습및 훈련.
3. 훈련교재 : 「Interchange(intro)」 -캠브릿지 대학 출판사-
4. 장 소 : 꿈이 있는 교회
5. 훈련대상 : 중학교 영어 책을 단순이 reading할 수 있고,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분. 해외선교를 준비하는 신학생 및 목회자 환영. (☞ 영어학습에 대한 기본기를 완전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영어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중고생자녀와 같이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6. 훈련등록 : 반드시 4월 26일(화)까지 등록신청(교재구입및 사전준비 관계상 엄수)완료 선착순 42명. (TEL.264-0691 C.P 011-386-6239, 016-236-0688)
- 꿈이있는 선교 언어 훈련원 -

춘천 영적지도자에게 듣는다.

이번 시간에는 신성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창수 감독님과의 인터뷰입니다.



조: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처음 춘천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게 된 것이 몇 년도이신지요? 먼저 춘천지역에서 교회를 섬기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김: 저는 1971년도에 춘천에 왔습니다. 군목으로서 교역자가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방회에서 폐쇄결정을 했던 본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지요. 부임할 때만해도 이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목회 초기에는 교회가 빚이 많고, 힘이 들어서 목회를 그만 두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교회의 빚을 갚아주셨고, 제 자신도 한일산기도원에서 금식기도를 하면서 다시 목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차분하게 목회사역에 전념하였고,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주셨습니다.

정: 목회초기 가지고 계셨던 목회사역의 방향성이나 목회철학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세요.

김: 처음부터 목회사역의 방향성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이러한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 주변의 주민들은 본 교회가 건축과정 중에 지고 있었던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교회도 목사도 다 도둑놈들이다! 라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부정적 의식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우리교회의 빚을 외국 선교사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해외선교로 사랑의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미자립교회의 어려움을 잘 알게 되었기에 이러한 교회와 사람들을 많이 돕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현재, 지역사회를 위해 효도관광을 총 12회 실천하였는데, 매번 400명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또한 노인대학 및 복지관사역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회관을 인수해서 건전한 기독교문화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 저는 성시화운동의 사무총장으로서 늘 춘천성시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시화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시는지요?

김: 성시화는 몇 교회나 몇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교회, 전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시화의 이상을 그려보고, 계획만 세우는 것은 매우 공허한 일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것을 실천할 때라고 봅니다.

조: 성시화와 관련해서 기독교정당 등 기독교인들의 정치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성시화와 정치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 교회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원로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치를 해서는 안되지만, 정치에 무관심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 정치를 하려면 분명한 신앙관을 가져야 해요. 본 교회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허천장로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허천장로님은 매우 성실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도의원을 하면서 한때 실망하여 낙심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많이 위로했습니다.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국회선교사가 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선거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 많은 오해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허천장로님은 믿을만한 분이세요. 저녁예배, 새벽기도회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시면서 신앙의 본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어려운 시기에 국회로 보내셨는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 허천장로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하여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회가 할 일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목회자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것과 더불어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 장학재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김: 제가 알기로 불교도 일찍이 장학재단을 통하여 인물들을 키워왔습니다. 이단인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인물을 키워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춘천지역의 여건으로 볼 때 교회가 단합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에요. 차선책으로서 모든 목회자와 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들을 길러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교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들을 밀어줘야 합니다. 저는 본교회 성도 중에 누구든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발령받아 타지로 나아가게 되면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발령받아서 가는 지역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자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기도와 협력을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출신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군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게 중요하고, 교회들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협력해 주어야만 합니다.

조: 목사님! 성시화와 관련해서 성시화운동본부에 제안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지요?

김: 저는 군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선교에는 2020프로젝트가 있어요.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전도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시화운동본부에서도 구체적인 전도전략과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춘천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전도실적도 각 교회별로 확인하고 평가하게 되면 성시화운동의 현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전략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서 -예를 들어, 전도의 날 제정- 개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춘천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예를 들어, 성시화기도제목을 소개하는 기도소책자발행, 기도포스터제작-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성시화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서 지속적이며, 총체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2005년에는 전도의 해로 정해서 전도에 집중하고, 2006년에는 공동체의 해로 정해서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라는 의식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정: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하게 됩니다. 특히 춘천의 모든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요청인 것 같습니다.

김: 성시화를 위한 이벤트성 행사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대외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한 유일한 길은 전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성시화운동을 전개하는데 귀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김: 사실 성시화운동을 앞장서서 이끌고 가시는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임원들에게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힘이 되어주는 데는 미비한 도움밖에는 드리는 것이 없네요. 그러나 힘내시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데로 힘껏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춘천시내의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일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연합운동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운동입니다. 시간도 걸리고, 갈등의 요소도 있지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일시 : 2005년 3월 8일
장소 : 춘천신성감리교회 목양실
진행 : 조영춘
글정리 및 사진 : 정재호, 김미경







인도네시아 반다아체(BANDA ACEH) 긴급구호를 다녀와서

글. 남기덕(새비전교회 담임목사, 작은교회연합 춘천지역 간사)

메카의 밭코니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그 사랑하심이 두 눈에 보이는 듯하다. 수많은 기독교도를 학살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아체족의 우월성 때문에 같은 나라 사람들도 외면하고, 화란의 350년 점령에 맞서 1000여명의 희생자를 내면서도 주권을 빼앗기지 않은 민족. 회교 율법이 무너진 인도네시아 정부에 맞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독립하여 완벽한 회교 원리주의적인 국가를 세우려 했던 민족. 동서남아시아 전 회교도들이 평생 한차례 성지 순례를 위해 이곳에 모여 출발하고, 다시 들아와 율법을 훈련하고 자국으로 들아가 회교 율법을 각 나라의 통치이념으로 세우려 했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던 곳,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던 그 축복을 쓰나미 사랑으로 승화시키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다아체 앞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의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한다 해도 기록할 수 없는 은혜의 현장이었다. 도시의 3분의 2가 폐허가 되었고, 30만 명이나 넘는 많은 인명피해, 모든 사람들의 폐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시체의 냄새와 온 도시를 휘감아 도는 공기, 하루에 다섯 차례씩 울려 퍼지는 무슬림 사제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절규, 들 하나까지 남겨지지 않은 상처의 현장에 나뒹구는 쓰레기와 집터... 필자는 눈물을 흠치며 이렇게 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름해 본다. 무너진 건물더를 파서 자기의 동족을 묻고, 그 위에 건물 잔해와 쓰레기를 묻는 사람들, 잔해 더미를 파헤쳐 고철을 줍고, 생필품을 마련하고, 금은 귀금속을 찾아내어 부의 기회로 삼는 이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개인건물의 사체 발굴을 할 수 없다는 법에 묶여 요동치며 절규하는 영혼들의 을음들은 이제 그들의 웃음이 되었다.



▲숙소가 있는 마을 학교(초등)에서 신발나눔사역을 마친 후

1월 30일 주일 아침 우리 일행은(목사님 28명, 사모님 1명)은 인도네시아행 비행기 탑승하여 13시간 만에 인도네시아 메단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현지 선교사님 1명, 현지 신학생 5명과 함께 우리의 목적지인 아체로 이동하였다. 출발한 지 18시간 만인 2월 1일(화) 새벽 5시에 드디어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짐(방역기, 소독약, 화장실 지을 재료)을 내리고 아침예배를 드린 후 팀을 6개조로 나누어 팀장, 기계담당, 주방담당, 물품담당을 세웠다. 그리고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체험하러 나갔다. 일산 신도시 정도의 도시가 폐허로 변해있었다(해변서 도시 내부로 약 10KM, 길이 약 40KM). 세계 7대 미항 가운데 하나인 반다아체 백사장이 단 한 평도 남지 않고 사라졌으며, 수마트라 섬(한반도의 다섯배)이 남쪽으로 35M나 이등했다고 한다.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는 현장이었다.

▼쓰나미가 있었던 지역에 방역을 나가서(맨 좌측이 필자)



▼방역사역을 나가서 난민촌 어린이들과



우리는 쓰나미의 현장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10명을 어렵게 초청하여 만나볼 수 있었다. 3~4세의 어린이, 16,7세의 청소년, 20대의 젊은 부인, 5,60대의 노인들이었다. 당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 밖으로 나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지진 후 15~20분 만에 갑자기 거대한 물이 마을을 덮쳤다고 한다. 물은 흡사 코브라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 높이는 야자수(14~5M)보다 높아 야자수를 덮고, 집과 상점들을 덮었다. 그리고 3차례에 걸쳐 쓰나미가 들어왔는데 두 번째 들어온 파도가 가장 무서웠고, 물과 함께 모든 것(사람, 자동차, 건물, 나무 등)이 사라졌다고 한다. 인터뷰 후 이들을 돕는 헌금시간을 가졌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모든 용돈을 내놓았다. 이들은 쓰나미를 생각하면서 무서워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2월 6일, 반다아체에서 처음 맞는 주일 아침 예배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부산에서 오신 이상덕 목사님의 대표기도에 우리 모두의 눈가엔 눈물이 흘렀다. 앗싸! 앗싸! 앗싸! (앗싸는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할 수 없어서 사용한 은어) 앗싸!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다니, 앗싸! 이곳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니, 앗싸!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방역하는 모든 지역에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다니, 앗싸!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니(신8:16)... 할렐루야!

이곳에서 약15일 등안 머무르면서 우리는 주로 비행장과 라반다와 룸바다라는 난민촌 지역 등 폐허가 된 넓은 지역을 골목골목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방역 사역을 하였다. 연막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달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국영방송국 內 난민촌도 방역 사역과 함께 신발나눔사역을 하였는데 이날은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인들... 우리가 준비한 10,000켤레의 슬리퍼가 30분도 안되어서 동이 났다. 우리의 방역사역이 알려지면서 P.T.I TV 지역 방송국과 국영 TV에서 취재를 나와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셨다.

우리들의 수고와 땀이 이들에게 좋은인상을 주었는지 현지 경찰이 24시간 숙소 경비에 들어갔고, 마을 주민들도 우리가 이동할 때면 모두 나와 환영해 주었다. 어린이들은 손을 잡고,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 종려나무가지를 나귀 앞에 깔고 호산나하며 환영하는 모습과 흡사했다.

2월 15일. 이곳 주지사가 우리에게 허용한 고아원 부지와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나와 환영해 주었다. 우리 팀은 이미 이 마을의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아마 TV매체의 위력이 아닐까... 이곳에서도 신발나눔사역을 하고, 29"TV 1대를 기증하였다. 기념촬영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떠나올 때 아이들이 우리가 전하여준 아리랑을 불러서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다. 주여! 저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주님의 귀한 일군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반다아체에서의 20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온 필자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았다. 첫째는 반다아체를 강타한 쓰나미가 하나님의 희망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반다아체를 덮었다.(합2:14)

둘째는 작은교회연합 200여명이나 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을 밟은 것이 하나님의 희망이요, 지금도 반다아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전국의 목사님과 교우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선교 사역들이다(고아원, 나환자촌, 국제 기술학교).

셋째는 슬픔의 한가운데 있는 지역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있지 않은 웃음소리와 메단(인도네시아 제3의 도시)의 신학교와 신학생이다. 그들은 인도네시아 선교의 한 알 씨앗이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12:24). 그들이 뿌려져 100배의 결실 맺을 날을 기다린다.

눈앞에서 혈육을 잃은 반다아체 주민들을 생각하니 연민의 정도 느껴지고, 감사의 마음도 생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앗싸! 할렐루야!

숙녀복 / 예 복 / 가 죽
까뜨리네뜨 춘천점
레모네이드 춘천점
봄 신상품 세일
30%
조흥은행 강원본부 앞
대표 전 순 천
(순복음춘천교회 집사)
☎ (033) 252-7262 / 휴대폰 018-333-7262

사진의 명가
귀 빈 스 튜 디 오
〔주공 1단지 시장 옆〕
▶ 백일 · 돌 · 웨딩사진촬영
▶ 교회임직 가족사진 촬영
대표 신 병 철
(순복음춘천교회집사)
전 화. (033) 253-8608 / 휴대폰. 011-377-2599

춘천 성시화운동은 환경운동

"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글 김성호 목사(강촌감리교회)

나라의 틀(국가)이 이루어지려면 영토, 주권, 국민이라는 3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땅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백성이 있어야 하고, 법과 통치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로부터의 약속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하나씩 갖추어 가셨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선택하셨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다윗과 메시야의 통치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에스겔37:27)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하늘(天)을 여시는 일이요, 둘째는 땅(地)을 만드신 일이요, 셋째는 사람(人)을 만드신 일이다.

지난 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창조 사건-신시개천(神市開天), 곧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 창조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호에는 그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지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새 땅을 향해 떠났던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다. 그 약속이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나온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우리 한민족의 창조 이야기에도 역시 하늘을 여시는 개천(開天)의 사건만이 아니라 땅을 만드신 개지(開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桓國)엔 하늘 백성(天民)이 머물 땅이 필요했다. 그래서 개인(開人) 곧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개지(開地) 곧 땅을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원래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살아온 유목 민족이었다. 이 지구를 대표하는 큰 문명권이 네 개가 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슈메르, 우르)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갠지스 문명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들 문명의 맥을 잇는 또 다른 문명의 흔적이 계속 발굴되고 있다. 그것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스키타이 문명이다.

이 스키타이 문명의 흔적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스키타이 문명의 유적과 유물에서 2000년 전에 세워진 우리 고대 국가 가야와 신라의 유적이나 유물과 아주 똑같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실은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정착하기 전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살았고, 그 스키타이 문명의 주역으로 살아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스키타이 문명과 가야와 신라의 문명은 찬란한 황금(금관)과 옥의 문명임을 잘 알 수 있다.

회려한 수메르 문명권의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러 아시아 대륙의 서쪽 맨 끝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고 선민(先民)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또, 찬란한 수메르로부터 이어진 스키타이 문명권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아시아 대륙의 등쪽 맨 끝 한반도로 오게 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늘백성(天民)으로 살게 하셨던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한반도이다. 이 땅이 한민족의 가나안 땅이다. 대륙의 서쪽 땅 끝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의 시작을 알리는, 처음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한민족은 대륙의 등쪽 땅 끝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의 끝을 위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반도의 중심에 있는 도시 춘천을 성시로 만드는 성시화운동이 우리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춘천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곳 춘천이다. 이 땅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 땅 춘천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보전해야 한다.

나무 없는 산, 새들이 지저귀지 않는 숲, 물고기 없는 개울은 상상만 해도 몰골이 송연해 진다. 그러나 이 같은 무서운 일들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간들의 무모한 환경파괴 때문이다.

워싱턴의 환경감시기구인 "월드 워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1세기엔 광범한 생태계 파괴로 지구상 조류의 75%가 멸종 위기를 맞게 되며 미국에서만도 7백여 종의 식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툰드라와 산호초의 소멸, 철새나 짐승들의 이동에 의한 혼란, 습지의 소멸 등으로 다음 세기의 생태계 파괴는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의 온실효과다. 월드 워치는 온실효과 저지를 위한 최후의 시간이 이미 지났다고 경고하고 더 이상 늦기 전에 근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 땅 위에 살다가 땅으로 돌아간다. 땅은 우리의 일부이고 우리는 땅의 일부이다. 따라서 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유명한 교육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이 땅을 파괴하면 땅도 인간의 탐욕에 대해 반격을 가해 온다"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대륙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심게 한 이 땅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의 그 금수강산이 더 이상 아니다. 심로 슬프고 안타깝다.

우리나라에서 춘천(春川) 하면 맑은 내가 흐르는 곳, 봄의 향기를 언제나 맡을 수 있는 아름다고 깨끗한 도시를 연상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어 통치하실 하늘 백성(天民)이 살아갈 이 땅을 새롭게(開地) 하여 신시(神市), 곧 에덴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늘 백성 되게 하는 일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아 알았으면 한다.

우리 춘천이 신시 회복의 자랑스런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춘천 성시화운동은 땅의 회복, 곧 환경운동이 되어야 한다.

[※본 글은 기고자의 신학과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 예수'를 닮은 교회

의미있는 교회탐방순서로 갈릴리교회(최영조 목사)편입니다.

갈릴리교회는 춘천우두감리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교회로 1992년 설립되었다. 우두감리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했던 최영조 목사(조미경 사모)가 소명을 받아 개척시부터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갈릴리교회는 '갈릴리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다.

갈릴리를 닮은 교회로의 부름 받음

갈릴리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교회는 본격적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갈릴리교회 앞으로는 소양강이 흐른다. 소양강변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갈릴리 해변을 걸으셨을 예수님처럼 갈릴리교회를 지나가려면 소양강변을 걸어야한다.

갈릴리교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갈릴리 교회가 개척될 초기 주변 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지역의 지대가 낮은 탓에 범람하는 소양강물로 자주 물난리가 났다. 쓰레기매립지가 근처였고, 고물상과 돼지 농장도 있었다. 여름이면 악취와 파리떼들로 들끓었다. 당연히 지역의 지가는 하락되어 있었고, 습합형태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곳에 부름 받은 최영조 목사. 최목사가 처음 주님을 알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다. 가족 중에서는 동생이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최목사는 오랫동안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대학 1학년 시절. 지금은 춘주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윤석 선교사를 통해 주님을 만난다. 최목사는 윤석 선교사와 함께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 소속되어 전도훈련, 제자훈련, 성서훈련, 리트릿 등 소위 '늦바람이 무섭다'(?)고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게 된다. 조미경 사모를 만나게 된 것도 이 무렵.



최목사가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 생활을 하던 시절이다. 최목사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지만 전공과는 관계없이 군종으로 선발된다. 이 또한 최목사에겐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로 기억된다. 경건의 시간과 금식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던 중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최목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1:20,21)

최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우두교회의 협력으로 지금의 갈릴리교회를 개척한다. 그것이 1992년. 개척 후 3년여 간은 하나님이 풍성한 일꾼들 주셨다. 에배당을 다시 건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의 부흥이었다. 그러나 IMF사태를 전후하여 개척 초기에 이미 500여명까지 모이던 교회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여러 가정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또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개척 7년이 되던해



교우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사역지를 옮기고자 인천의 모교회 부목사로 청빙까지 받아놓은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영적인 탐진과 함께 좀 더 깊은 신학공부에 대한 열정도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은 사역지를 옮기기로 한 그 전 주간에 있었던 성탄절에배. 성탄 연극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떠나고 나면 저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질 것이 아닌가... 이것이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올바른 자세인가... 저 아이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내가 영적인 부모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 이 대목에서 청계천 빈민선교에 일생을 헌신했던 활빈교회 김진홍 목사(현 구리 두레교회 목사)가 떠오르는 것은 웬일일까. 마치 지금은 성공한 (?)목사로 잘 알려진 김진홍 목사의 젊은 시절 일대기를 듣는 것 같다.



공부방과 미용 · 가정사역

최목사의 관심은 온통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모아져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어린이공부방과 미용선교이다. 1995년부터 매달 한 번씩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머리를 깎아주었다. 교회 제직 중 한 분이 미용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관계된 미용학원에서 실습생들을 파견해 주어서 매월 40-50명이 찾아올 정도로 동네에서 인기가 높았다.

공부방은 방학 중 아이들의 숙제를 점검해 주고 독서를 지도해주는 정도로 미용선교와 비슷한 시기에 열렸다. 지금은 상설로 매일 급식과 꽤 수준이 있는 학업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프로그램도 수준이 높다. 한림 미술치료센타 성복순 실장이 매주 방문하여 지도해주고 있고, 방학 중에는 현장학습, 오지 탐방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공부방 사역이 외부에도 알려져 모 재단에서 아담한 2층 형태의 공부방시설을 무료로 지어주기도 하였다. 최목사는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스스로 독서지도사 자격을 취득했고, 지금은 사회복지사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한 가지를 시작하면 그 일의 열매를 볼 때까지 깊이 있게 접근하는 최목사의 성품이 엿보인다.

최목사는 가정사역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다. 가정이 바로 서지 않는 한 교회도 민족공동체도 바로 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 때문에 최목사는 대학원에서는 상담학을 전공하였고, CPE(목회임상상담학)과정도 수료하였다. 송길원 박사(건강가정시민연대)에게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 부분에 관한 독서량도 상당하다. 이러한 입소문 때문에 선교단체나 교회들에서도 가정사역, 결혼사역에 관한 강사로 최목사를 자주 부른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면서 미처 묻지 못한 질문이 떠오른다. '갈릴리 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하는 것이다.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지었을까? 어쩌면 성서의 갈릴리와 이리도 닮았을까? 우리가 알기로는 성서의 갈릴리는 도저히 나라의 인재가 배출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곳이다. 그곳 사람들의 성격은 거칠었으며, 건달들, 깡패들이 많이 살던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해진 그곳 갈릴리. 우리들의 메시아가 자주 '갈릴리 예수'라 불리었고, 메시아의 제자 중 왕초격인 베드로와 그 외 많은 다른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였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자고 할 때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였던 곳 갈릴리. 주님과 제자들의 추억과 손때가 묻은 곳, 그곳 갈릴리. 갈릴리 예수와 갈릴리를 너무나 닮은 아름다운 교회. "빛이 있으라 너 갈리리여!"(사9:1,2) (취재 최상도 / 사진 김미경)

밀레니엄 기획사
■Total Event■
· 기획 · 제작 · 연출
지역문화예술이벤트 / 공연&콘서트 / 동문회 파티 각종모임 /
연수 및 캠프 / 체육대회 단합대회 / 레크레이션 오픈이벤트
■Having Hard Ware■
· 음향 · 조명 · 무대 · 특수효과
대표 김덕선
H·P : 016-362-8424
Tel : (033)-241-9996-7 / 243-9997 FAX : (033)241-9996
e-mail : mevent@kornet.net / 강원도춘천시 소양로2가 172-1

춘천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예수향기를!!
교회현수막 전문
www.chunil1.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만 치도 됩니다.
천일디자인
T.255-5722 F.256-5722

소개합니다

CCC 미술치유 선교센터



미술치료란?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사람그림'을 그리게 하면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얼굴이 없는 사람, 괴물과 같은 사람, 형태가 심히 왜곡된 사람 등 매우 다양하게 그려집니다. 아예 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림을 그렸지만 까맣게 그이버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등의 그림들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림이 매우 작거나 선이 흐리게 또는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처럼 그림 속에는 그 사람의 자아상이 들어 있고, 대인관계, 가족관계, 무의식적인 사고의 틀, 깊이 잠재되어 있는 기억들 – 좋은 기억, 나쁜 기억 – 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뇌와 눈, 손이 협응하여 사람의 심리를 표현하는 매우 과학적인 작업입니다. 그림에 나타난 그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를 파악하고 핵심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술로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이 미술치료입니다.

미술치료와 선교

미술치료는 옥토밭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 3가지 밭들은 옥토밭이 되지 못하게 하는 각각의 원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새, 돌, 가시 등의 문제점들이 있지요. 문제점을 알게 되면 해결책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슨 밭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미술치료가 이런 문제를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나 선교단체 등의 사역자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사역대상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또한 사역자 자신이 안고 있는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미술치유센터의 프로그램

- 사역전문 미술치유사 양성 교육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상담관련 사역자들의 전문적 사역을 위한 교육
- 사역자 자신을 위한 미술치료 체험
- 내적치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 그림을 통한 심리검사 (자아상, 인간관계, 가족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관계 등을 진단, 치료, 교정)
-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전문인력지원
- 개인, 가족, 사역자 자녀 등의 여러 대상들을 위한 미술치료그룹 운영

[글. 성복순 소장 (017-373-9273)]
[한림미술치료센터 은영, 순천향대학원 미술치료 석사과정 전공, CCC내적치유 상담자 학교 수료 CCC 전임 간사 역임]

영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마 28:1~20]



최현묵 목사(남춘천침례교회, 교경협의회장)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며 초석입니다. 만약 기독교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존재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고전15:12~22)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1.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예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히9:27).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요(롬3:23), 죄 값이 사망이기(롬6:23)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구원할 수 없기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행 4:12)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대속의 죽으심이요, 예수 부활은 영원히 다시 사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고전15:17~22).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엡2:8).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롬 10:9~1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은 나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나와 관계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곧 나를 위한 것이기에 복음이며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복음 중의 복음인 것입니다.

2.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죄와 사망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확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권세를 이길 수 없었고 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무덤이 있으나 예수님은 승리하셨기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슬픔을 안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기쁨을 얻게 됩니다(마28:8). 불안이 변하여 평안을 얻게 됩니다(요20:19). 절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눅24:13~35)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되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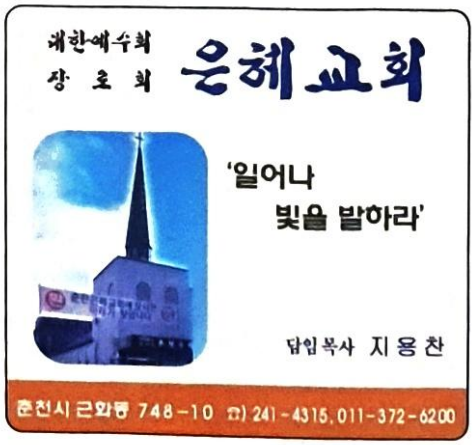
부활신앙, 승리확신의 믿음을 가진 자는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11:25)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합니다.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3.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는 일에 가야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내가 가야할 곳으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고, 바울과 같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막16:15~16, 딤전2:4). 먼저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하여 춘천복음화에 힘쓰고 세계선교 복음화에 힘써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한 인생의 6가지 덕목

성경이 만든 사람 - '워너메이커' 중에서

사랑하는 손자 존에게

8월 1일이면 존 네가 벌써 스물한 살이 되는구나. 네가 진정 성인이 된다는 것이 할아버지는 정말 믿기지 않는다.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네가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에 나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단다. 네가 지금부터 하는 말과 행동은 네 인생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많은 실망과 아픔을 줄 수도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오랜 경험으로부터 배운 몇 가지 교훈들이 너에게 가치가 있을 것이라 여겨져 꼭 들려주고 싶구나.

인생은 달려가는 기차의 트랙과 같단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또 어디에서 정확하게 서야 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많은 젊은이들이 게으름과 무능함, 빈둥거림과 비효율, 어리석음과 낭비, 무기력과 타락을 가까이 하다 추락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단다. 그렇지만 너는 분명 보다 훌륭한 인생길을 선택하리라 믿는다. 근면과 성실, 고귀함과 유능함, 부와 행복과 유용성을 갖춘 길 말이다.

젊은 사람의 기차는 난폭하게 달릴 수 있도록 장비가 갖추어져 있단다. 그리고 기차가 난폭하게 달릴 때 기계는 고장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즉이거나 장애자로 만들기도 하지.

스스한 살이 되는 젊은이들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기차를 운전해야만 한단다. 어떤 사람은 운전석으로 올라가서 엔진이 녹슬 때까지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기차를 장난감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리기도 한단다. 그들은 무지와 부주의로 기차의 40개의 칸 중 하나를 전복시키기도 하고, 처음 1,2마일은 잘 달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을 잃고 비틀대다가, 마침내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말지.

나는 네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여섯 개의 소중한 덕목을 알려주고 싶다. 네가 지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바른 길로 네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덕목은 "근면"이다

근면은 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 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말하지. 꾸준함에는 결국 어떤 것도 당할 수 없거든.

두 번째 덕목은 "고귀함"이다

고귀함은 말과 행동의 진실함을 통해서 얻게 되지.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히 따라오게 된단다.

세 번째 덕목은 "유능함"이다

유능함은 네 손 안의 돈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의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성경 말씀처럼 보증을 서지 말고,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는 능력이란다.

네 번째 덕목은 "영예로움"이다.

영예로움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큰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람과는 교제를 하지 않는 거란다. 또한 술에 코를 꿰지 않고, 돈을 건 모든 도박에 참여하지 않으며, 여자들을 지극히 위해 주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정직한 모습을 보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때 주어진단다.

다섯 번째 덕목은 "재물"이다

재물은 앞의 덕목들을 잘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인생의 위대하고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 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위대한 상급의 약속이란다. *"나(하나님)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나도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는 성경말씀을 꼭 기억하렴.

여섯 번째 덕목은 "행복"이다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덕목이지. 행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단다. 그리고 멀리 있지 않고 항상 네 곁에 가까이 있단다. 너도 네 인생의 트랙에서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걷게 되면 행복은 항상 너와 함께 있게 된 거다.

사랑하는 존!
할아버지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와 함께 가까이 있길 원한단다. 앞의 덕목들을 평생 너의 마음 판에 새겨 소중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911년 7월 26일
손자 존을 사랑하는 할아버지 존



성시콤

〈김 춘 배〉



예 향 (예수의 향기)

구주 예수님과 동행한 행복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이란 책에 보면 인도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인도의 12개 지역에 선교회를 세웠고 무려 44개의 언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유 있게 일했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쫓과 나무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그는 인도 세림포르에 정착한지 얼마 안되어 무려 6,000평의 땅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었다. 정원은 그의 영적, 정서적 쉼터였다. 그는 말년에 질병의 후유증으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야 했을 때에도 이 정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꽃향기를 맡으며 생의 마지막 영감을 얻었다. 생을 마감하기 며칠 전 그를 방문한 동료선교사들에게 그동안 주님과 동행한 자신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웠노라고 고백했다. 이를 듣던 한 선교사가 그의 업적에 대해 계속 칭찬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신 듯합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면 내 이야기 말고 나의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며칠 후 간호사가 와서 아침이 눈을 감았을 때 그의 손에는 벵갈어 번역 성경 개정판이 들려져 있었고 열려진 창으로 아침의 꽃향기가 방안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다고 한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구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큐브로 쉽고 효과적으로 전도하십시오."

'복음 큐브'가 있으면 전도에 자신감이 생기고,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복음 큐브'는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서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가격: A형 - 10,000원(크기 7cm의 정사면체)
B형 - 7,000원(크기 3.5cm의 정사면체)

- 각 교회 전도대, 개인전도, 어린이 전도에도 탁월한 도구가될것입니다.
  - 전도는 하고 싶은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할 지 막막할 때.
  - 복음을 시각적이면서 쉽고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싶을 때.
  -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데 논리적인 설명이 안되어 고민될 때.

방문하셔서 직접 '복음 큐브'를 사용해 보시면 그 효과를 아실 것입니다.
지희 기독서점에서는 서적, 각종 교회용품 뿐만 아니라 컴퓨터 조립판매와 책임있는 수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기독서점 대표 김 동 민 집사(꿈이있는교회)
육림극장 맞은 편 TEL 244-9103, 241-9103 / H.P 011-9879-9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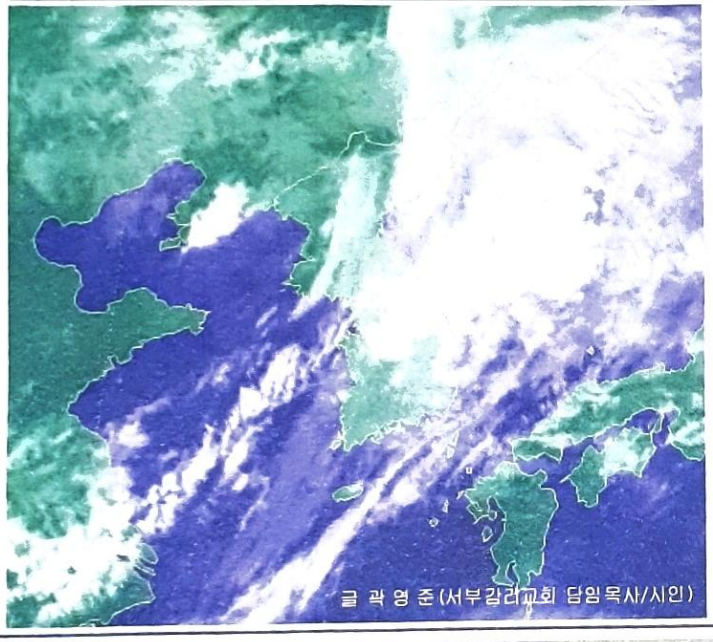
聖地로의 특별한 초대

♥ 성지 순례
♥ 단기 선교
♥ 여권 비자
♥ 항공 발권

성지순례 프로그램 센터 강원지부

우리여행클럽 ☎ 242-6400

/ 포 / 토 / 에 / 세 / 이 /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이론을 파하며
우상의 가증한 단과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수는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회개의 바람아 불어라

정의와 공의를 농락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민족의 하만과 아간
저 무디어진 양심을 깨우는
회개의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기도의 바람아 불어라

삼천리 강산 칠천만 민족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거짓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의 바람아 불어라

글 곽 영 준(서부감리교회 담임목사/시인)

책 소 개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 폴 헤티웨이 지음 / 고석만 옮김, 홍성사
글. 춘천평안교회 고재만 목사



이 책은 요즘 믿는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고, 책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감격에 겨워 이 책을 소개한다. 많은 분들은 이미 책에 대한 소개를 받았을 터이고, 한 번 읽어야지 계획을 세워 놓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기에 소개하는 것이 뒤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생각하는 의미에서도 꼭 한 번은 읽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소개한다.

이 책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윈 형제의 간증이다. 현대판 사도행전과 같은 기적과 중국 가정 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그 현장의 생생한 증언이 소개되어 있다.

「그의 본명은 리우전잉(劉陣英), 1958년 중국 허난성(河南省) 난양현의 한 농촌에서 태어나, 1974년 부친의 기적적인 암 치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늘의 사람'은 그가 중국 정부의 극심한 박해 속에 30회 이상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름이다. 정부의 기독교 정책과 타협하지 않고 중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그는, 심자애국운동에 가입하기를 거부한다는 죄목으로 1984년 처음으로 중국 공인에 체포되어 힘든 투옥의 시기를 겪는다. 감옥 안에서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금식하기를 결심하고 7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한다. 1991년 역시 같은 이유로 2차 투옥되었으나, 출소 후 중국가정교회 연합운동을 일으켜 1996년 10월 '시님연합'을 창립하였다가 1997년 3월에 다시 체포된다. 두 달 후에 기적적으로 탈옥한 그는 세계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그 해 9월 독일로 출발한다. 현재 독일에 근거를 두고 전 세계를 순회하며 중국 교회의 선교 비전인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의 간증을 접하면 먼저 충격을 받는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한 편에서는 믿음을 위하여 이렇게 처절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또 충격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을 믿는 다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기보다는 주를 위해 목숨을 내 놓아야 한다", "주를 위해 자신의 안일과 평안은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다. 복음을 위해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수감생활을 했지만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고난 때문에 전도자들이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주님이 함께 해 주셨기에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들이 당한 고난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바라보라"고 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지금 윈 형제를 그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서방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깨우는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심정으로 이 책을 대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 임을 다시 깨달아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이다.

구인 · 구직광고

"문서 선교사 구함"

활동목적: 거주지 또는 전국에 문서선교의 사명을 갖고 국민일보를 확장 보급하는 것

1. 월 기본부수 30부 이상
2. 기본급여 50만원
3. 확장 1부에 국민일보 후원선교회에서 1만원 해당 지국에서 1만원(30부×2만원=60만원)
4. 확장 종류:
   ① 각 교회 행사집회 또는 주일 예배 홍보확장
   ② 연고 확장 ③ 가가호호 방문 확장 등
5. 근무지: 춘천시 전역
6. 채용서류: 이력서 1통, 주민등록 1부
7. 문 의: 251-8250 / 011-373-3838

행 사 안 내

▣ 월드비전 ▣

'제16회 파란 글 꽃그림 잔치 및 동요부르기 대회'

♣일시 : 2005년 5월 7일(토) 오후12시 ~ 6시
♣장소 : 춘천시 어린이회관(삼천동 소재)
♣대상 : 춘천지역 초등학생 1~6학년
♣분야 : ① 사생대회 (희지 제공)
② 백일장 (원고지 제공)
③ 동요부르기
- 예선 4. 16(토)
오후 2시 춘천복지관 3층 강당
- 본선 5. 7(토)
오후 4시 춘천시어린이회관
♣참가비 : 3,000원(1인당) 춘천시내 전 초등학교 신청서 배부
♣마감 : 4월 11일(월) ※행사당일 현장접수 가능. 단 동요부르기 제외
♣문의 : 033) 254-7244 fax 251-1164
※ 월드비전은 세계최대의 기독교 국제구호단체입니다.※

사랑의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강원 춘천시 효자1동 373-90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1-7241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000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카페 크리스챤
T:244-9117 시청 옆
http://cafechristian.cyworld.com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알선 (수학 · 졸업 이행)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현 집사(춘천동부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대 한 종 합 관 리
※ 내 집같이 성실하게 가꾸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위생 관리 대행]
• 준공청소 • 입주청소 • 외벽청소
• 대리석 · 타일 등 각종 석재 복원 및 광택
• 카페트세척 및 청소 • 유리세정작업
• 청소용품 및 세제 · 약품 납품
대표 이 운 용
춘천시 효자1동 661-11번지 / ☎ 256-7987. Fax 256-7986
Mobile : 016-719-8033

♡ 춘천아버지학교 VISION 2005

두란노아버지학교 주최로 '춘천아버지학교 VISION 2005'가 지난 3월 5일(토) 오후 7시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 열렸다. 춘천1기 수료자와 스텝 등 1,000여명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2005 아버지학교 사업계획설명 및 비전선포식과 순결서약식을 가졌다. '아버지들이여! 순결하십시오.'라는 주제로 편처진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아버지들은 가족 앞에서 정신적 · 육체적으로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하였고, 유동선목사(춘천중앙성결교회)가 설교를, 그리고 두란노아버지학교 졸업생인 가수 김창남과 홍성남의 축하공연도 있었으며 김주환목사(순복음춘천교회)의 축도로 이날의 행사를 마쳤다. 제2기 춘천아버지학교는 오는 4월 2일(토)에 개강하여 5주간 진행된다.

♡ 이동원목사 설교세미나



JDM주최로 지난 3월 11일(금) 오전 10시 세계제자훈련원에서는 춘천지역의 교역자와 캠퍼스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교회 이동원목사의 강해설교세미나가 있었다.

♡ 춘천한길교회 담임목사 은퇴 · 취임예배



지난 3월 18일(금) 오전 11시 한길감리교회는 이영호 원로목사 은퇴찬하 및 이인호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300여명의 성도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광석목사(사창교회)의 사회로 드린 예배는 동부연회 감독 박거종목사의 설교와 최현영감리사의 축사, 고창배목사(수원신광교회)와 김우영목사(만나교회)의 축사가 있었다. 서울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40년 목회의 길을 걸은 이영호 원로목사는 춘천서지방 감리사(87년)와 춘천교역자연합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제12회 월드비전 자원봉사자 축제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명신)에서는 제12회 월드비전 자원봉사자 축제를 마련하였다. 이날 1부 기념식에는 사공정목사(춘천중앙장로교회)의 기도, 류종수 춘천시장의 축사, 허천 국회의원과 함종호 춘천시의회 의장, 한경숙 춘천시자원봉사센터장의 격려사가 있었고, 권오서감독(춘천중앙감리교회)이 축도를 하였다. 2부 순서에는 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춤과 노래, 레크레이션 등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으며 봉사유공자에게 표창상도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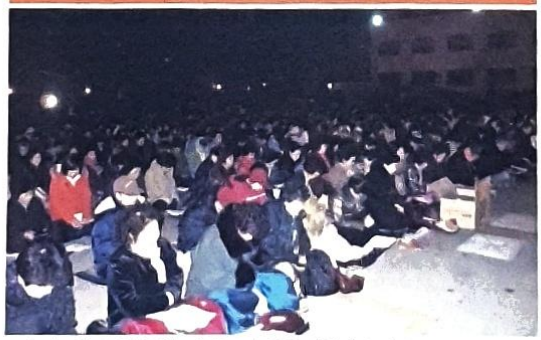
♡ 한반도 십자가 평화대행진



지난 3월 12일(토) 삼천동 시민공원 야외음악당에서는 '평화통일과 국민화합을 위한 한반도 십자가평화대행진'이 약4천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인가운데 발대예배를 드렸다. 본 행사 준비위원장 한균목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는 기독교연합회 부회장 박상호목사의 기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제로 기독교연합회장 유진형목사가 설교를, 조관일 강원도정무부지사의 격려사, 류종수 춘천시장과 허천 국회의원의 축사, 김현곤목사(새순성결교회)의 헌금기도, 성시화사무총장 조영춘목사의 합심기도가 있었으며 김주환목사(순복음춘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발대예배 후 5개 대대로 나눠 십자가를 메고 시민공원에서부터 도청까지 시가행진을 펼쳤으며, 도청에 모여 김지한목사(신사우동장로교회)의 사회로 마침기도회를 드렸다. '2010 세계레저총회 춘천유치를 위해' 박인관목사(광염감리교회)가,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조영호목사(춘천그리스도의교회)가 특별기도를 하였고, '깨끗한 춘천, 거룩한 춘천'을 소망하며 행사에 참여한 모든 목회자와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애국가를 부르고 오승룡목사(기독교연합회 직전회장)의 선두로 합렐루아십창을 제창하였다. 이날의 모든 행사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춘천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 2005 부활절연합예배



지난 3월 27일(주일) 새벽 5시 춘천시청광장에서는 1,500여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렸다. 연합회 부회장 박상호목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는 부회장 임운식장로의 기도, 월드비전 관장 이명신권사의 성경봉독, "우리의 부활"을 주제로 기독교연합회장 유진형목사가 설교를,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이원호목사(소양성결교회)가, '교회연합과 춘천성시화를 위해'한균목사(평화감리교회)가, '춘천시정과 세계레저총회 유치를 위해' 황인정목사(선교중앙침례교회)가 특별기도를, 지용찬목사(은혜장로교회)가 헌금기도를 하였고, 류종수 춘천시장과 허천 국회의원의 축사, 오승룡목사(연합회 직전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MPS선교세계관학교 개강

지난 3월 12일(토) 오후 3시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에서는 약 100여명의 수강생들이 모인가운데 제5기 선교세계관학교가 개강하였다. 선교세계관학교는 선교사들의 강의를 통해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계로 나가는'선교사 또는 선교동원기로서의 실제적 안목을 갖게 하는 21세기 크리스천 지도자를 키워내는 과정이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12주간 동안 강의가 진행된다.

♡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강원지역본부 이사장 이 · 취임식



지난 3월 14일(월) 오후 6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강원지역본부 이사장 이 · 취임식이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춘천중앙감리교회 권오서감독은 신임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안형순 전이사장(강원도민일보사장)은 이임하여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특별히 2005년 강원지역본부에서 처음으로 장기기증을 실천한 민병업(남춘천감리교회)장로에게 꽃다발이 증정되었으며 장기기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물이 상영되었다. 권오서감독은 "장기기증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 십자가 평화대행진 평가회



춘천기독교연합회는 3월 22일(화) 오후 5시 30분 소양제일성결교회에서 약 15여명의 준비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12일에 있었던 한반도 십자가평화대행진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장 유진형목사는 "십자가평화대행진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조직을 더 강화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져서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십자가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 춘천지회 후원인 보고대회



사랑의집짓기운동 춘천지회는 3월 29일(화) 오전 11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본회 김병체이사와 자문위원 김창수감독, 김진국춘천부시장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후원인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날 2004년 결산 및 2005년 사업보고와 함께 오정균세미을지도자춘천협의회장과 한택수 동아산업대표 등 10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사랑의집짓기운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시 지정 모범업소
유림닭갈비
대표 : 최 순 복 권사
온의동 닭갈비촌 감복 원조집
순수국산닭만 사용하는 맛과
기쁨을 주는 믿음의 업체입니다.
본관 253-5489
별관 251-5489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033-242-5573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광 고

사 설



독도는 우리 땅!!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땅으로 고대의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부터 검증되어 있던 독도가 6.25를 거치는 1951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민족의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 이웃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며 파렴치한 일들을 자행하더니만 이젠 아예 자기네 땅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제적으로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돈과 외교적인 힘을 사용하여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며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이 땅을 정복하려는 어이없는 일들을 시퍼렇게 눈을 뜬 우리 앞에서 자행하고 있다.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정말 도둑놈 심보로나 가능한 일이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울분을 감출 길이 없다. 이럴 때 아예 집주소를 독도로 옮겨놓고 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마음이 든다.

그런데 기도시간, 이 사건을 되짚어 조용히 우리 믿음인에서 일어나는 영적현상들을 묵상해 본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이에게 주신 은혜와 권세는 세상을 복되게 복음으로 변화시킬 넉넉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권세는 생명의 권세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압제하던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며 이긴 유일한 새 힘이며 이를 통해 우린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변화시킬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탄은 마지막 남은 최선을 다해 이런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교묘히 속여 그 권세를 사용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미혹하고 헛된 일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하나 되면, 교회가 하나 되면, 그리고 강청하여 기도만 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된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를 사용만 한다면 세상에 속한 이 땅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어찌면 독도를 인한 울분보다 더 창피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나태하고 무지한 영적생활이 아닐까? 실상 사탄의 저급한 속임수에 놀아나며 아직 세상을 향해 수수방관 아예 변화에 대한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 내가 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머리를 흔들어본다.

주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새 일을 위해 십자가의 댓가까지 지불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옵소서. 아멘.

❀ 알려드려요

◆예수사람운동
1) '목동 모임'
일시 : 4월 2일(토) 오후 6:30
장소 : 동부장로교회 소예배실
문의 : 244-3400/018-306-5171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춘천지구 대표간사 이·취임식'
일시 : 4월 9일(토) 오후 4시 장소 : CCC회관
문의 : 254-5776

◆예수전도단
1) 예수전도단 춘천 화요모임
춘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 동부장로교회
대상 :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독수리 예수 제자훈련학교(REITS)
일시 : 5월 6일(금)~16일 7일(금) 매주 목, 금 저녁 7시~11시
장소 : 춘천성광장로교회 원서마감 : 4월 8일(금) 인원 30명
원서교부 : http://cafe.daum.net/CCBEDTS에서 다운로드
문의 : 252-1126 / 011-9490-6612
3) 캠퍼스 정기모임 안내
강원대 : 매주 목 오후6:30분 백록관2층 동아리방
(문의 : 조용일 간사 011-254-6517)
한림대 : 매주 금 오후6:00분김유정관 4층 9106호
(문의 : 허정아 간사 010-6217-7533)
춘천교대 : 매주 목 오후6:30분 교내 조흥은행2층 IVF동아리방
(문의 : 이원빈 간사 010-6750-5541)

◆JDM
1) '리더의 밤'
일시 : 4월 4일(월) 저녁 7시 장소 : 춘천지구회관
2) 'WDTI' 개관 예식
일시 : 4월 23일(토) 오후 2시 장소 : WDTI
3) '각 캠퍼스별 모임안내'
1) 강원대학 : 큐티모임 - 월~금 오전 8시 동아리방(백록관 309호)
기도모임 - 월~금 오후 6시 동아리방(백록관 309호)
목요채플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강의실)
2) 한림대학 : 큐티모임 - 월~금 오전 8시 동아리방(알생회관 JDM동방)
기도모임 - 월~금 오후 6시(동아리방)
목요채플 - 매주 목요일 6시 30분(동아리방)
3) 교육대학 : 큐티모임 - 월~금 오전 8시 동아리방
목요채플 - 매주 목요일 6시 30분 동아리방
4) 한림성심대 : 목요채플 - 매주 목요일 6시30분 한림대와 연합으로 소그룹 성경공부 - 그룹별로 정해진 시간에

◆IVF
1) '세계관학교'
일시 : 3월 21일(월) ~ 6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7시 ~ 10시
장소 : 아시아선교원
대상 : 각 대학 2학년
문의 : 252-5200/아시아선교원
2) '간사전략회의'
일시 : 4월 22일(금) ~ 23일(토) 장소 : 포천
3) 캠퍼스 정기모임 안내
• 강원대 : 매주 화 오후6:30분
(문의 : 한제님 간사 011-367-9120, 조천일 활동학사
• 한림대 : 매주 화 목오후6:30분
(문의 : 이웅훈 간사 016-444-7400, 김광빈 활동학사
• 춘천교육대 : 매주 화 오후6:30분
(문의 : 박용한 간사 017-374-6865, 양창모 활동학사
• 성심, 가능대 : 매주 화,목오후6:30분
(문의 : 박용한 간사 017-374-6865, 양창모 활동학사

◆어린이 전도협회
1) 봄학기 새소식반 주간 강습회
일시 : 3월 7일(월)부터 5월 21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반 10:00~12:30 / 저녁반 7:00~9:30
장소 : 베드로선교센터 5층
문의 : 253-1443, 242-8291, 018-292-8839
이메일 : 911ha-ra@hanmail.net

◆신교세계관학교(MPS) 개강
일시 : 3월 12일~5월 14일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장소 :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 253-3399/019-9903-1148

◆춘천 제2기 아버지학교 개강
일시 : 4월 2일~30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
문의 : 253-2711 / 010-3088-5079

◆ Ani 중보기도학교
일시 : 3월 24일 ~ 6월 16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 전성균 간사 (018-203-8917)

◆장로교연합회 체육대회
일시 : 4월 5일(화) 오전 9:30분
장소 : 춘천기계공고(후평공단)
문의 : 019-261-5572

◆기독교단체 실무자 연합모임
일시 : 4월 18일(월) 오전 8시 장소 : 소래
문의 : 252-1717 / 011-361-1995

◆CBS춘천방송 개국10주년 기념 예배
일시 : 5월 1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춘천중앙감리교회
초청강사 :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

◆아가피아 독서를 통한 대안교육
일시 : 4월 20일(수) 오전 9시
장소 : 강촌감리교회
문의 : 256-1260 / 010-6416-8150

< 성시신문 후원자를 찾습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동산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랑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새순교회
샤우동장로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열린교회
예광침례교회	중앙장로교회	석사감리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	춘천성결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제일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
현일현수막	헤비타트(춘천지회)	의암기도원
우리여행클럽	연무어	유림닭갈비
쵸인테리어	다티피아	농협선교회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흥 수	이 용 규	이 은 주
이 판 호	이 학 규	유 근 창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리 브 가



